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'18.3.28일(수) 10:00	배포	2018.3.28.(수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(02-2100-2630)			담 당 자	이 선 희 사무관 (02-2100-2876)

제 목 : 제2기 금융위원회 ombudsman 위촉 및 kick-off 회의 개최

1. 회의 개요

- 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'18.3.28. 제2기 ombudsman 위촉을 위한 Kick-off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ombudsman을 임명

< 회 의 개 요 >

- 일 시 : '18. 3. 28(수) 10:00 ~ 10:40
- 장 소 :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금융위원장(주재), ombudsman 위원장 및 업권별 ombudsman 등 5명,
금융위 중소서민국장, 금융소비자과장, 금감원 부원장보, 감독총괄국장

2. ombudsman 구성 및 운영

- ☐ (구성·운영)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,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ombudsman 임명

- 외부 추천을 받아 각 업권별*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

* ombudsman 위원장, 은행, 금투, 보험, 소비자·중소

-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개최

□ (역할)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,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 및 소비자 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

-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(지도공문, 구두지시, 자율규제) 등을 지속 발굴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
-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

* 금융소비자, 벤처·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

3. 향후 추진 방향

◆ ombudsman을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발전

□ 그동안 ombudsman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,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청취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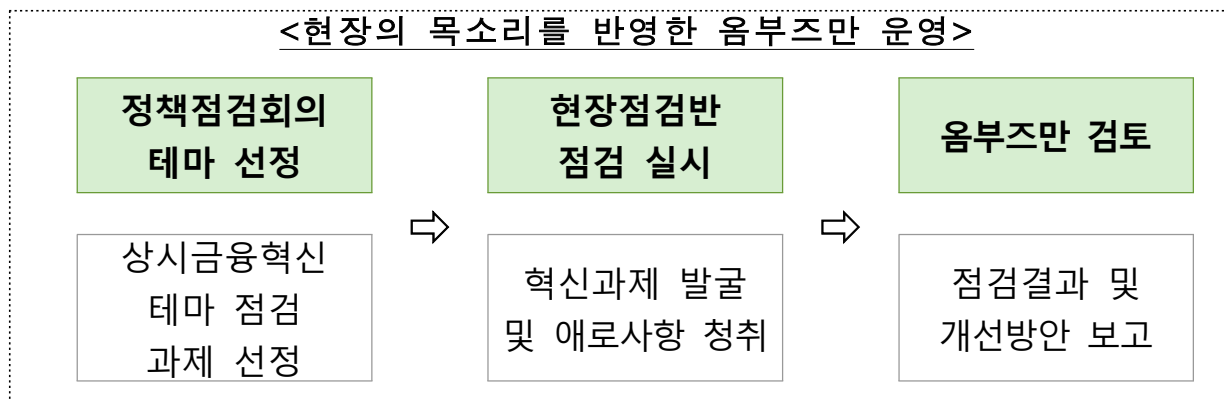
➡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 실시

- ① (현장점검 상시화)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*을 지속하여 「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」를 발굴

* 연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통해 연 1,200명 이상 금융소비자(청년층, 주부, 벤처기업, 장애인 등)의 목소리를 청취

- ② (운영 활성화) 현장점검시 발굴된 과제를 분기별 ombudsman 회의를 통해 객관적·독립적인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화

<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ombudsman 운영>



4. 주요 발언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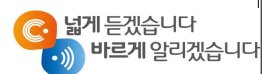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2기 옴부즈만이 소비자중심의 금융 혁신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함
 - 금융위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비자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*
 - * 사전정보 → 상품판매 → 상품이용 →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단계 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
 - 정책수립 과정에서 옴부즈만들이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람
 - 금융당국도 옴부즈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, 옴부즈만 회의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할 것임
-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할 예정
 - 금융혁신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옴부즈만들과 함께 고민
 - 금융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들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정책당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음

※ <첨부> 금융위원장 모두말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별첨1

제2기 옴부즈만 프로필

	성명	현직	학력	주요경력
위원장	 장용성(1953)	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이사장	▶오클라호마대학 행정학 석사	▶금융개혁회의 위원 ▶한양대 경영대 특훈교수
은행	 서정호(1964)	금융연 선임연구위원	▶연세대 경영학과 ▶미 텍사스공과대 경영학 석사/박사	▶국회 핀테크육성 특위 위원 ▶신협 기금관리위원회 위원
금투	 최승재(1971)	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	▶서울대 법학 박사 ▶미국 콜럼비아 로스쿨	▶권익위 해석 자문단 위원 ▶김앤장 법률사무소
보험	 김은경(1965)	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	▶외국어대 법학과 ▶독일 만하임대 법학 박사	▶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위원 ▶한국보험법학회 이사
소비자 · 중소	 조성묵(1961)	서민금융 연구포럼 회장	▶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	▶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 ▶한국은행 조사부, 금융결제부

- ◆ 금융회사가 건의한 규제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과제 93건을 검토하여 총 58건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

1. 금융규제 개혁

①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「공통이용 행정정보」 범위 확대

- 행정정보 공통이용 서비스(행안부)를 통해 카드,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* 간소화 ('18년중)

* 주민등록등·초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

②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

- 휴면카드 자동해지기준을 거래정지 후 3개월 → 9개월로 연장하여, 해지·가입 반복에 따른 카드발급 비용절감 ('17.12월)

③ 빅 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-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유출 및 책임발생에 대한 우려 해소

* '18.상반기중 신용정보법 개정추진

④ 금융업 신규등록시 제출서류 경감

- 자문·일임업 등 신규사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중 금감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이미 공시된 자료의 경우 추가제출 면제* ('18.3월)

*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

2. 금융소비자 보호

① 카드사 약관 변경 고지방법 확대

- 카드사가 약관 변경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서면, e-mail 등 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추가 ('18년중)

② 휴면 보험금의 효과적 환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

- 금융소비자가 휴면보험금(7.6조원)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'내 보험 찾아줌' 시스템 구축 ('17.12월)
 - * '내보험 찾아줌'을 통해 환급된 보험금 : 8,310억원/59만건('18.1월말)

③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재개 허용

- 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본인확인
으로 거래중지계좌의 거래를 재개 ('18.5월)
 - * 직장인 등은 영업시간 내에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이 곤란

④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

-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특약을 도입('18.2)하여 보험요율
상승요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
 - * 자동차보험 수리비(연5.6조원) 중 부품비용(연2.6조원)이 46.4%

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변경

- 대학 신입생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
연령을 19세 → 18세로 하향조정 ('17.10월)